



야구를 사랑하는 모두에게

그대 없이는 불가능했던
올해의 드라마.

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어준 모두에게
오늘은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그리고, 사랑합니다.

오늘의 영광을
대한민국 모든 프로야구 팬과
함께하겠습니다.

KIA
Movement that inspires



기아 타이거즈 V12
정규 시즌, 한국시리즈 통합우승